

이달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車 모델별로 보험료 차등화

보험사들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차량 모델별로 자동차보험료가 차등화되고 화재·상해보험료가 소폭 인하된다.

또 5년 지난 질병이 재발해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일부 보험사가 암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보험상품과 제도가 종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다.

◇자동차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 차량 모델별로 자기차량 손해보상 보험료(자차 보험료)가 11개 등급으로 차등화된다. 손해보험사는 이 등급을 기준으로 자차 보험료를 ±10% 이내에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전체 자동차 보험료에서 자차 보험료 비중이

보험료, 화재 3.5·상해 3.3% 인하 5년 지난 질병 재발 보험금 지급

25%여서 전체 보험료는 ±2.5% 내에서 바뀌게 된다.

◇레이저 수술도 보험금 지급 = 보험 계약일로부터 5년 이전에 치료한 질병이 재발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만기 1년 미만 손해보험에 가입하면 입원하지 않고 수술을 받아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입원비를 지급하는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입원 중 보험 기간이

끝나도 그 이후의 입원 기간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레이저나 감마나이프 수술 등 메스를 대지 않는 첨단 수술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오토바이 운전으로 발생한 상해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특약의 경우 오토바이를 직업적으로 몰지 않는 사람이 일회성 운전으로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화재·상해·어린이보험료 인하 = 보험개발원이 최근 보험사들의 보험료 책정에 기준이 되는 참조준보험료를 5.3% 하향조정함에 따라 화재보험과 상해보험이 각각 3.5%와 3.3% 인하되고 이들 보험을 제외한 기타 보험이 12.6% 내린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6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함에 따라 이들 어린이의 입원치료비가 최대 40%까지 내려갈 수 있고 손보사들은 이를 반영해 어린이 보험료를 조정할 계획이다.

◇암보험 판매 중지 또는 보험료 인상 = LIG생명이 4월부터 암보험 판매를 중지한다. 동양생명도 암보험 가입 때 암사망 특약을 의무적으로 선택

해야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종전보다 보험료의 10% 인상이요인 발생한다.

암과 더불어 보험사의 손익에 악영향을 끼쳐온 입원, 수술 관련 상품도 변경될 예정이다.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만기 때 돌려받는 적립금 계산시 5년마다 갱신되는 의료비 관련 특약 보험료를 반영하지 않았던 회사들이 4월부터 반영하면서 보험료가 10~30% 인상될 전망이다.

◇보험사간 보험료 격차 확대 = 위험률 산출과 적용에 관한 모범규준이 시행돼 보험사들은 자사의 과거 보험금 지급실적 등을 토대로 산출한 경험위험률(보험 사고율)을 갖고 보험료를 책정해야 하며 과거 통계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만 보험개발원의 참조 위험률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보험 상품이라도 보험사 간에 보험료 차이가 커져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꼼꼼히 비교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

‘처음 입사했을 때’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처음 입사했을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는 ‘내 인생의 결정적 순간’을 출간한 이미지박스와 함께 직장인 1천 521명을 상대로 지난달 23~28일 ‘인생 중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7.1%가 ‘처음 입사했을 때’를 꼽았다고 1일 밝혔다.

이어 ‘실직 또는 이직했을 때’가 18.2%였고 ‘대학 입학’ 17.1%, ‘결혼·출산’ 9.3%, ‘좋은 책이나 멘토와의 만남’ 7.5%, ‘해외여행이나 유학·연수’ 5.2%, ‘부상·건

‘커리어’ 직장인 1,521명 조사

강약화’ 4.3%, ‘애니와의 이별이나 이혼’ 3.9%,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2.7%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자 중 기혼자는 ‘입사’(23.2%), ‘실직·이직’(20.1%), ‘결혼 및 출산’(19.0%) 등의 순이었고 미혼자는 ‘입사’(30.9%), ‘대입’(22.6%), ‘실직·이직’(16.4%) 등의 순으로 답했다.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개인의 열정 및 능력’이라는 대답이 29.8%로 가장 많았고 ‘재산 및 소득수준’(21.9%), ‘가정환경’(17.4%), ‘직업 및 지위’(11.2%), ‘인적네트워크’(7.2%), ‘교육수준’(6.3%) 등으로 집계됐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으로는 ‘부모님’(39.3%), ‘친구’(13.3%), ‘배우자·애인’(9.7%), ‘직장동료·상사’(7.4%), ‘형제·자매’(6.7%) 등이 꼽혔다.

연합뉴스

‘인터넷 뺨 휴대전화’ 판매

단말기 값 큰 폭 떨어진다

시장 혼란 우려도

우리나라 무선인터넷 표준 플랫폼을 탑재하지 않은 저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판매가 전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좀더 저렴한 비용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게 됐지만 국내 무선인터넷 관련산업의 위축과 함께 외국산 저가 단말기의 국내시장 유입에 따른 시장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무선인터넷 표준 플랫폼 ‘위피(WiFi)’를 탑재하지 않은 휴대전화 판매를 위해 KT아이컴간의 합병인가 조건 이행계획서 내용을 변경해달라는 KTF의 요청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심의회에서 ‘허용시기를 고려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해 행정적 절차를 거쳐 KTF의 ‘위피없는 휴대전화’ 판매를 곧바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는 또 SK텔레콤의 경우 이미 신세기이동통신의 합병 인가조건이 2005년 1월 변경돼 위피 없는 휴대전화의 판매를 할 수 있으며, LG텔레콤도 아

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그러나 무선인터넷 기능을 지원하는 단말기에는 위피 탑재에 의무화해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으로서의 위피 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KTF는 3G HSDPA(고속하향 패킷) 휴대전화에 위피를 탑재하지 않은 단말기 3만대를 LG전자로부터 구매, 일부 대리점에서 예약접수에 들어갔다.

SK텔레콤과 LG텔레콤도 당장 위피 없는 휴대전화 판매방침을 밝히지 않았지만 KTF의 공세에 대한 반격차원에서 저가 휴대전화의 판매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저가 휴대전화 시장이 본격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위피없는 휴대전화의 판매를 허용키로 한 이번 결정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통부 강대영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무선인터넷 사용 비율은 전체 휴대전화 이용자의 47% 정도로 아직 상당수가 무선인터넷을 쓰지 않는 상황에서 무선인터넷 기능의 휴대전화를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해외유학·어학연수 박람회

어학연수와 유학에 대한 학생 및 직장인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 주관으로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해외유학, 어학연수 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관계자들과 직접 상담하며 유학 및 어학연수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다.

어학연수와 유학에 대한 학생 및 직장인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 주관으로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해외유학, 어학연수 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관계자들과 직접 상담하며 유학 및 어학연수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다.

연합뉴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땀 10년간 재원 45조원 소요

KDI 지적, “복지부 정책결정 등 문제 많아”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소요 재원의 예측부터 정책결정의 과정, 정책목표의 방향 등에서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일 ‘보장성 확대정책으로 살펴본 건강보험 관련 의사결정과정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공적보험의 급여영역 관련 연구적으로 영향을 가지므로 결정과정의 재검토가 시급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우선 보건복지부가 보장성 강화정책을 위해 2005년 1조3천억

원, 2006년 1조원, 2007년 7천억원, 2008년 5천억원 등 총 3조5천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투입재원은 1회성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재원은 2008년까지 계속 누증돼 10조1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2008년 이후에는 매년 3조5천억원이 필요하게 되며, 따라서 10년간만 합산해도 35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어 이 계획이 보장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0%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이는 설비투자 등 자본비용을

포함한 총 국민의료비에서 공적재원이 부담하는 비율이므로 우리의 건강보험 급여율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별화자의 부담액이 큰 편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계획대로 특정 질환자에 지원을 집중하면 저역부담자들이 특정 질환의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의 혜택을 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는 비판했다.

이와 함께 식대와 차액진료비는 필수적 의료서비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급여외 전환하는 조치는 지지를 얻기 어렵다면서 급여확대 항목에 대한 원칙이 없어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60세 이상 노인 53% 휴대전화 보유

미·일·독·불 보다 높아

한국의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휴대전화(PHS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52.7%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보다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일 마이니치(毎日)신문은 일본 내각부의 자료를 인용,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이들 5개국에서 모두 1천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고령자 생활과 의식에 대한 국제비교 조사’를 한 결과 ‘휴대전화와 PHS를 이용해 친구들과 연락한다’는 응답이 한국 52.7%에 이어 미국

47.2%, 프랑스 45.4%, 독일 39.8%, 일본 28%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국은 2001년 조사 당시 18%로 미국(21.7%)에 이어 2위를 기록했으나 5년여만에 미국을 제쳤다.

PHS는 국내에서는 무선전화, 옥외에서는 휴대전화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기이다.

반면 휴대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부터 올해 2월 사이에 이들 5개국에서 모두 1천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고령자 생활과 의식에 대한 국제비교 조사’를 한 결과 ‘휴대전화와 PHS를 이용해 친구들과 연락한다’는 응답이 한국 52.7%에 이어 미국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226회)

Table with columns: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등위, 당첨금(원). Shows results for the 226th lottery draw.

팝콘복권 (제49회)

Table with columns: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Shows results for the 49th popcorn lottery draw.

함께 일합시다



Table listing job openings with columns: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Includes various positions like IT, HR, and administrative roles.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복부비만 치료제 ‘살사라진’ 시판



헬빙의약품 전문기업 휴온스는 복부비만 치료제 ‘살사라진’을 1일부터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 약국을 통해 판매한다.

‘살사라진’은 동의보감에 수록된 ‘방풍통성산(防風通聖散)’ 처방에 기초해 당귀·작약·천궁·연교·박하 등 총

18가지 생약재로 만든 한방 엑기스로, 지난해 일본에서 출시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들 생약 성분은 체내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각종 노폐물을 소변이나 땀과 함께 배출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 제품은 내장비만이나 복부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는 중년 남성 및 직장인에게 적합하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문의 080-447-4700.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